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특히나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제사법과 절기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제사법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으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절기를 이해하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들이며 동시에 이 절기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직전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출12:2)"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달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사용하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달력을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달력과는 180도 다른 달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이라고 말씀하신 종교력의 1월은 원래 유대인들의 민간력의 7월이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월이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7월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7월이 하나님의 달력에서는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정을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들은 각각의 명절이나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민족의 명절이나 기념일은 여호와의 절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명절은 대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념하거나 계절의 변화 또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명절을 만들었지만,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제정하신 뒤에 그 절기의 의미에 맞는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원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닌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른 표현입니다. '절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모에드'는 '지정된 시기와 장소' 또는 '지정된 모임'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막'이나 '회막' 또는 '성회'나 '대회' '정한 때'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실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약해 주시고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절기를 feast 즉 축제나 잔치의 의미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절기의 원래 의미를 살리는데 조금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오히려 NASB 성경이 번역한 '여호와의 정한 때'(The LORD'S appointed times나 한글 성경의 '절기'라는 표현이 '명절'이나 '축제'보다는 그 의미를 좀더 잘 반영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력에 따른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3월에 있는 칠칠절은 맥추절, 오순절 또는 오십일을 계수한 날 등으로 불립니다. 7월에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나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또한 9월에는 수전절(요 10:22)이 있고 12월에는 부림절(에 9:21-32)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농사와 관련하여 씨를 뿌리는 파종이나 수확을 하는 추수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대속제물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심과 성령의 강림 그리고 이제 심판 주로 다시 오실 것 등,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월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유월절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고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 넘을 유(逾) 넘을 월(越)을 써서 유월절, 영어로는 Passover이라고 부릅니다.

1월 10일에는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선택하는데 가족의 수에 따라 또는 가족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친척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1월14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고기를 불에 굽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날인 1월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하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7일 동안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에는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보리가 나는 때로 이 보리의 첫 이삭은 아직 본격적으로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나는 보리의 처음 이삭입니다. 백성들이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께 흔들어 드렸고 백성들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로 묶여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도 유월절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초실절에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도 유월절 다음의 안식일 후 첫 날인 초실절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 종교력 즉 여호와의 절기력으로 3월에 있는 맥추절로도 불리는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때라는 의미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칠칠절은 초실절 이후 일곱 안식일이 지난 날이라는 의미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칠칠절을 레23:16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라는 말씀대로 오십일을 계수한 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에 성경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칠칠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흠 없는 어린양 일곱과 어린 수소 한 마리 그리고 숫양 두 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소제와 요제와 전제를 드리며 속죄제와 화목제도 함께 드립니다.

신16:9-12 말씀에 보면 이 칠칠절에는 자녀와 노비, 레위인과 객, 고아와 과부 등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도행전 2장에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0여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상 방방곡곡 각계각층의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대 종교력 여호와의 절기력으로 7월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7월1일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 무엇인가를 알리거나 기념하는 날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매달 첫날이나 전쟁을 할 때 또는 주요 절기에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특히 매달 첫날 중에서도 이 7월 첫날의 나팔을 부는 날은 다가오는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안식일로 정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백성들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는데 민29:1-6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 소제, 상번제 그리고 전제와 화제를 드렸습니다. 살전4:16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지만, 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4:17)"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나팔을 부신 것을 의미합니다.

7월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날은 1년에 한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다는 의미로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죄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로 죄를 애통해하며 자신을 낮추고 잠잠하여 스스로 겸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 안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한번 이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며 속죄하였습니다. 지성소에서 나온 후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어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오셨으며(마20:28) 지성소에 피를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대속죄일을 완성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히9:12).

7월15일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이나 장막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쑤카' 즉 '숙곳'이라는 말로 '가축우리' '오두막' 등 임시 거처, 텐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에서 초막(장막)을 치며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레23:43).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살았던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광야에서 삶은 임시 거처로서 초막에서 살았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며(출19:4) 동시에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산8:4, 느9:21). 다윗은 시61:4에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로도 불렸는데 초막절을 수장절로 부른 이유는 일년 동안의 수확 물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출23:16). 수장절에는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 석류 등 마지막 과일들을 수확하여 창고로 들이고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다른 명절 때의 추수보다 더 큰 수확을 함으로 추수 감사의 의미가 있는데 이로서 대속죄일 이 후에 그 죄가 속죄함을 받은 자신을 알곡으로 거두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여호와께 매일 화제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8일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첫날부터 7일 동안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행2:38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대속죄일에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9월에 있는 빛의 축제 수전절은 요 10:22에서만 언급되어 있고, 에스더서에 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12월의 부림절(에 9:21-32)등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찾아 성전에 불을 밝힌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요1:4-5, 3:19, 8:12, 9:5, 12:35-36).

부림절은 12월 14일과 15일에 지키는 절기로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될 위기에 처해있던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이 되어 도리어 대적을 도륙하게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림절의 의미는 에9:21-22에 잘 나와 있는데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는 말씀입니다.

부림절은 예수님께서 심판 주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읽어 드린 말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부림절은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날" 입니다. 에9:1 말씀처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둘째 사망 곧 불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계20:13-15).

두 번째는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계21:4).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잔치를 베풀며 즐기고 예물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19:9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마5:3). 마지막으로 부림절은 여호와의 절기 달력의 맨 마지막인 12월 아달월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아비브월(니산월)부터 시작하여 부림절이 있는 아달월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창2:2-3). 동시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출31:13).

6일 동안 땅을 경작하면서 이 6일 동안의 노동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일 째는 안식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며, 매주 반복적으로 안식일을 기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매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쉼으로 그 땅에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레25:4 말씀에는 안식년을 가리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농사를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년을 통하여 땅의 주인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

히 레25장은 안식년과 관련하여 포도원, 포도열매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마20:1 참조).

희년은 일곱 번의 안식년 후인 49년이 되는 해의 대속죄일에 뿔 나팔을 불어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표하는 50년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는 종으로 팔려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갔으며 땅에도 파종을 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였습니다. 49년째 해인 안식년과 50년째 해인 희년에 파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다음해에 파종을 해도 결국에는 3년 만에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복을 주시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레25:21).

희년에는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이 회복되고, 종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가난한 사람, 포로로 잡혀간 사람, 또는 종이 된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의 해가 선포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절기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는 이와 같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